

# 원효탄생지 제석사 붕괴위기

'해동초조(海東初祖)로 일컬어지는 원효성사 탄생지에 세워진 제석사(주지 적연)가 빗물이 새고 벽이 허물어지고 있으나 정부와 종단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말사인 제석사내 대웅전과 칠성전에는 3년 전부터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 지붕에 비닐을 덮어두고 있으며, 벽의 흙이 떨어져나가는 등 붕괴 일보 직전이다.

특히 40여년간 번와(甃瓦)를 하지 않아 지붕에도 올라갈 수 없는 대웅전에서는 붕괴위험을 무릅쓰고 예불을 보고 있으며, 비가 오면 물통을 준비해야할 정도. 제석사는

## 대웅전·칠성전 비 새고 벽 허물어져 종단 무관심...당국 뒤늦게 보수나서

9년째 방행해 온 원효성사 탄생 다례제(예산 1300만원 소요)의 맥을 잇는데도 힘에 겨워 도량정화는 불자들과 종단, 정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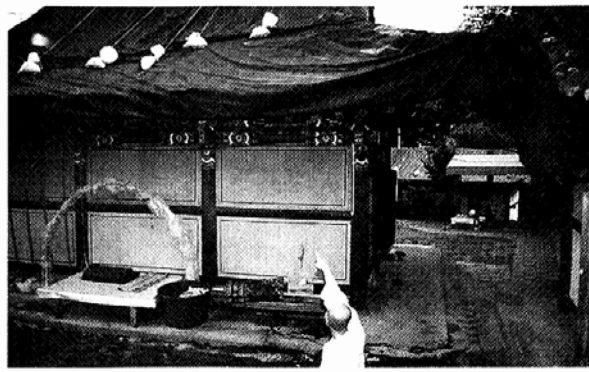
이처럼 제석사가 폐사 일보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인 은해사와 조계종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수 관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경북도와 경산시 역시 전통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지정문화재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지원 대상에서 항상 소외시켜 왔다. 몇 년 전 은해사가 제석사와 칠성의 탄생지

인 용성 반룡사,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 등 3대 사찰을 성역화하는 불사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호지부지 되고 말았다.

제석사 신도들은 "해동초조인 원효성사의 탄생지를 이토록 방치한 조계종이 도의국사를 중조라고 떠받들려 한다면 할아버지를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를 호강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기획실장 일철 스님은 "본사인 은해사가 제석사를 성역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종무원에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석사의 붕괴위험이 알려지자 경북도와 경산시는 최근 잇달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 관계자는 19일 오사카(大阪) 도쿠지(徳住) 보수비 1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경산시가 빠른 시일내 현장 실측을 통해 설계도를 확정하고 예



산을 집행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제석사의 복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석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출가한 후 생가 곁에 지어졌던 사리사(舍利寺)가 폐사됐다가 600여년 전 말갈이하던 농부가 불상과 탑신을 발견하고 사찰을 복원했다는 설화가 있으며, <한국사찰전서>에는 1625(인조 3년) 유한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확실한 유물이 없다는 이유로 원효스님의 탄생지가 아니라는 이견도 있으나, 주민들과

○제석사 총무 성인 스님이 붕괴직전인 대웅전 지붕을 가리키고 있다. 오른쪽은 한쪽 벽이 허물어진 칠성전.

## 재일교포불자 50년만에 첫 합동법회

### "동포간 화합 발원"

재일동포 불자들이 남북으로 갈라선 반세기만에 함께 합동법회를 치렀다. 재일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한불연·회장 김태연)와 재일조선불교도총회(조불연·회장 홍보월)는 16일 오사카(大阪) 도쿠지(徳住) 주지 무애·조불협(조불협)에서 합동 법회를 가졌다.

동포 불교계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동포간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이다. 법요연 양측 스님 20

명과 민단 및 총련 소속 동포 신도 3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양측 스님들은 1시간여동안 이어진 합동법요를 통해 분단이 빚은 대립의 앙금을 털고 조국의 평화통일이 하루 빨리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했다.

법요를 마친 후 양측 스님들은 일본에 방치된 선조 유골을 봉환해 비무장지대(DMZ)에 안치하고 고국합동방문단을 구성해 남북사찰을 순례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협의했다.

김재경 기자

## 한국땅 1000km 걸으며 일제 악행 사죄 염불

일본 신덴(神奈)시 산묘보사(山妙法寺) 이와타 루조(岩田隆造)는 12일 도쿄(東京)역을 출발, 시모노세키(下関)에서 부관관례호를 타고 14일 부산에 도착해 '한국 일주 사죄 순례' 길에 올랐다.

"과거 일본이 범한 많은 죄를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하기 위해 한국 일주 순례에 나섰다"는 스님은 부산-경남 마산-전남 광양-광주-전북

전주-충남 부여-서울까지 간 뒤 다시 서울-대전-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되돌아가는 1000km 구간을 두 달간 걸을 예정이다.

일본 정통 승복에 노란 천을 두른 채 '謝罪(사죄)' '懺(사은)' 이라고 적힌 천을 부착한 등갑을 가방 두개를 양 어깨에 걸치고 '한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염불을 하며 순례에 나선 스님은 자신의 뜻을 방방곡곡에 전한 뒤 9월12일경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 용성스님 생가복원 상량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와 '백용성조사 유헌실현후원회'는 용성스님 입멸 60주기를 맞아 18일 탄생지인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 252번지에서 용성스님 생가 복원 상량식을 거행했다. 용성스님 생가는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복원된 다.

김상두 장수군수, 기념사업회 유종혁 이사장, 유흥수 전 광복회 사무총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죽림정사 조실 도문스님(대각회 이사장)은 "용성스님의 유헌실현(遺訓十事) 실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 동국대 의료봉사대 미얀마서 자비인술

동국대 경주캠퍼스(부총장 최규철)의 참사랑봉사대(단장 홍광표교수)가 미얀마에서 보살행을 펼치고 최근 귀국했다.

의사와 한의사, 외대생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된 참사랑봉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보름간 교육과 의료시설이 낙후된 미얀마에서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펴 미얀마 정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참사랑봉사대는 이 기간동안 200여명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1천300여명을 진료했다.

김재경 기자

## 종단소식

### 조계종

#### 총무원 포어 공모

총무원 기획실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 사회적 역할, 환경·통일 등 제30대 총무원의 운영방향을 잘 담아낸 포어를 공모한다. 8월7일까지 이메일, 우편, 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응모하면 된다. 제29대 총무원 포어는 '자비의 대중화-이웃과 더불어 자연과 함께'였다. (02)732-9342

#### 실상사 대안학교 열어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 작은(대안)학교 준비모임은 7월 30일~8월4일, 8월 13~18일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지리산 선돌마을 어린이 여름학교'를 연다. 또 7월 23~28일, 8월 6~11일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여름학교를 연다. 불교문화·생태기행·농장체험, 심성훈련 등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실상사 작은학교 준비팀은 학생들에게 중등 3년의 과정이 '지식기능인으로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과례'가 아닌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기 발견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내년 3월 중학교 과정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개교한다. (063)636-3369

### 태고종

#### 승려 교묘 연수 교육

제27회 전국 승려 및 교묘 연수교육이 8월 17일부터 22일 까지 일주일동안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8.17~19)는 합동도도 6기부터 13기, 2차(8.19~21)는 합동도도 14기부터 20기, 3차(8.21~23)는 21기부터 23기까지의 스님들과 교묘가 참가한다. 교육내용은 △태고종지 중승의 확립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진 포교 방법과 실제 △각종 법회법식의 통일방안 등이며 종단 발전을 위한 분임 토의와 종합토론의 시간도 마련된다.

### 태고회

#### 새회장 다운스님



종진스님들의 수행단체인 태고회 새 회장에 이도운스님(내자사 주지·사

진), 부회장에 정대은스님(인천 총무원장)과 송종연스님(성주암 회주)이 각각 선출됐다. 태고회는 지난달 26일 총연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새 집행부를 탄생시켰으며 동방불교대에 2학기 장학금 2백만원원을 기증했다. 총무를 비롯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무=법우(총연사 주지) △교무=지족(대흥사 주지) △재무=설산(백련사) △사회=해암(안정사) △감사=지성(총무원장) 청봉(용현사 주지)

#### 참나찾기 청소년 팔관제

한국불교청년회와 마음의 전화(회장 도각)는 8월 2~4일 태고총림 선암사와 금문사 향림사, 낙안민속마을, 낙안해수욕장에서 '참나찾기 청소년 및 지도자 팔관제 큰 모임'을 갖는다. 청소년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모임에서는 청소년들의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과 순결지킴이의 고귀함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삶을 제시해 주는 팔관제 지킴이를 서원하며 선 심리치료와 전통 다도 등의 강의를 받을 수 있다. (02)326-0248

### 자비종

#### 추풍령 문화회생자 천도제

총무원장 삼중스님(자비사 주지)은 14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구간에서 발생한 수확여행단 버스 연쇄추돌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천도제를 22일 참시현장 인근에서 봉행했다. 삼중스님이 집전한 이날 천도제는 법패와 추도법문, 전체 사망자 18명 중 13명의 희생자를 낸 부일외국어고 교가 합창 등의와 종합토론의 시간도 마련됐다.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지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촉자 김희균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 396-2736 H-P: 016) 228-2358 E-mail: bukba@kornet.net FAX: 02) 396-2735

#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 연등 배선의 혁신

# 법당 기도등 · 영가등 전기배선

**7명 일제식 케이블**

- **견고성**  
전선과 소켓이 일체이므로 튼튼합니다.
- **편리성**  
연등 고리가 있어 연등 설치가 용이합니다.
- **일제성**  
접촉불량이 없습니다.

※ 설치시 조광기를 기설해 드립니다

백중을 맞아 신성기획에서는 등배선에 관하여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등전선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바랍니다.

규격 · 내부용 - 30cm, 35cm, 40cm, 50cm, 기타  
· 외부용 - 1M, 1.5M, 2M, 3M, 기타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성만의 축적된 기술로 안전하게 제작·시공 및 확실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TEL: 02)993-8903-4 / H.P: 011)367-3786  
FAX: 02)993-8905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